

# 중국·몽골·일본 무형문화유산 '한자리에'

▶ 국립무형유산원, 중국·몽골·일본 무형유산 전승자 초청 무대

중국의 현악기 '구친'  
몽골의 '모링 호르'  
일본의 '구미오도리' 등  
내달 4일부터 이틀간 공연

아시아를 대표하는 세 나라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이 한자리에 모인다.

국립무형유산원(원장 강경환)은 중국·몽골·일본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전승자를 초청해 오는 8월 4~5일 유산원 연주마루 대공연장에서 공연을 펼친다.

공연 첫날인 8월 4일에는 오후 7시부터 중국의 전통음악이 관객을 만난다.

먼저 '구친과 그 음악'에선 예인의 뛰어난 연주곡을 들려줄 예정이다. 3년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의 대표적인 현악기인 '구친'은 10가지 방법으로 4옥타브의 음색을 낼 수 있는 악기다.

이어 느리고 간결하면서도 우아한 곡조를 '동사오(대나무로 만든 피리, 통소)'와 비파(세쉬루 연주하는 목이 구부러진 현악기), 관현악기와 타악기 등으로 연주하는 '난인'이 잇달아 연주된다. 난인은 중



국립무형유산원이 8월 4일부터 이틀간 중국·몽골·일본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전승자를 초청해 공연을 펼친다. 사진은 몽골족의 가창예술품.

국 남동부 푸젠성 민난 지역 사람들과 해외로 떠난 민난인들의 문화를 담은 음악 예술이다. 현존하는 중국 전통 악곡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쿤취'로 중국 공연을 마무리한다.

8월 5일 오후 2시에는 몽골 공연이 펼쳐진다.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음을 내어 다양한 화음을 만드는 몽골만의 독특한 가창예술인 배음을 선보이는 '몽골족의 가창예술, 후미'와 중국과 공동 등재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풍부한 장식음과 가성, 폭넓은 음역을 보여주는 '오르팅도, 전통민요 장가'를 공연한다.

또한 '모링 호르의 전통 음악'은 유목문화에서 탄생한 독특한 악기로, 머리에 말머리 조각장식이 특징인 모링 호르로 연주하는 음악이다. 초원에서 부는 바람 소리처럼 들린다 하여 초원의 첼로로 불린다.

몽골 민족무용의 원형으로 간주되는 '비일게'는 유목민의 생활 방식을 표현한 예술로, 보통 '게르(이동식 천막집)' 안의 좁은 공간에 반쯤 앉거나 책상다리를 한 채 공연하는 것이 특징이다.

5일 오후 7시부터는 일본 오키나와 제도에서 진행되는 공연예술 '구미오도리'가 열린다. 이는 지역의 전통 음악과 춤을 바탕으로, 노가쿠나 가부키 같은 일본 본토 전통공연뿐 아니라 중국의 여러 전통극 요소까지 통합·발전해온 예술이다.

공연 시작 전에는 호서대학교 박은옥 교수(중국), 영남대학교 박소현 교수(몽골), 숙명여자대학교 이지선 교수(일본)가 초청 중목의 다양한 이야기와 정보를 설명해 줄 예정이다.

공연은 무료이며, 오는 2일부터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에서 사전예약하면 된다. 10명 이상 단체관람은 063)280-1500로 문의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 무주덕유산리조트 썸머 페스티벌

### 시원한 산골서 신나게 놀아라

21일부터 30일간... B-Boy 등 공연 선봬

부영그룹(회장 이종근) 계열 무주덕유산리조트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 오는 21일부터 내달 19일까지 30일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리조트 내 이벤트 광장, 하드락 광장, 원형무대, 만선광장 등에서 다양한 공연과 체험 이벤트를 펼치는 '2017 무주덕유산리조트 썸머 페스티벌'을 진행하게 된다.

공연을 위한 이벤트 광장에서는 퓨전국악, 어쿠스틱 보컬, 전자현악, 클로즈업 매직, B-Boy, K-Pop 댄스, 레이저쇼, DJ&LED댄스 등 다양한 공연을 요일별로 다르게 선보이고, 체험을 위한 하드락 광장과 원형무대에서는 페이스 페인팅, 낚싯이 캐리커처, 스티커 타투, 풍선아트 등을 선보인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만선광장에서는 워터 건 서바이벌을 진행한다.

2017 썸머 페스티벌을 마쳤을 후 공연 또는 체험 이벤트의 인증 샷과 함께 무주덕유산리조트 해시태그를 자신의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 공유해 주신 분들께 시원한 '썸머 킴프티콘'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주말 한정 / 1일 30명씩 선착순으로 증정) /무주=전문선 기자



## 전주역사박물관 '나도 큐레이터 옛 그림 나들이' 참가자 모집

전주역사박물관(관장 이동희)은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교 4~6학년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박물관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6~28일 '나도 큐레이터-옛 그림 나들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여름방학 박물관 학교는 큐레이터의 기본 소양인 예술적 감각을 체득하고, 사군자(매화·난초·국화·대나무)에 담긴 선비 정신을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첫날에는 화예사와 함께 '사군자' 중 난과 대나무 그림을 감상하고, 그에 담긴 선비정신의 의미를 알아본 후 직접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진다. 이튿날에는 사군자 중 매화와 국화 그림을 감상한 후에 그려보고 자신만의 낙관을 만들어본다.

마지막 날은 이틀간 배운 사군자 그림 중 하나를 주제로 그려 작품으로 완성해 보고, 수료식을 갖는다.

신청은 19일부터 선착순으로 20명을 모집한다. 참가비는 1만5천원.

참가를 원하는 학부모와 학생은 전주역사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 韓 정음-日 나리타 우호 결연 15주년 특별전시

정음시립박물관, '이역만리  
같은과 다름' 9월 개막

정음시립박물관이 제10회 특별기획전으로 한·일문화교류전을 갖는다.

시립박물관은 "올해로 15주년을 맞은 정음시와 일본 나리타의 우호결연을 기념하기 위해 양 시의 문화와 문물을 비교 전시하는 '이역만리 같은과 다름' 전(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음시와 나리타시는 지난 2002년 우호결연 체결이후 중학생 홈스테이 실시와 정음 단풍마라톤 대회를 비롯 일본 큰북 축제 등 양 시의 주요 행사 개최 시 상호 참관 하는 등 지속적으로 교류해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전이 상대 시에 대한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높이고 교류 범위를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기획전은 9월 26일 개막될 예정이다. 전시는 같은 달 26일부터 2018년 1월 28일까지 정음시립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이어진다.

구석기시대부터 고훈시대(한국의 삼국시대, '고훈'은 한자어 '古墳'의 일본어 발음



정음시립박물관 한·일문화교류전에 전시될 유물.

으로, 3세기 중엽부터 6세기 말까지를 고훈시대 부른다.)에 이르는 한일 고대 문물을 비교 전시한다. 전시는 시대별 특징에 따라 총 4부로 구성된다.

제1부 '돌을 다듬어 도구를 만든다'에서는 구석기시대에 제작 사용된 타제석기와 흑요석제 석기를 다룬다. 돌돌석기와 돌날, 스펀찌르개, 밀개 등 양 지역에서 최초의 인류들이 사용한 다양한 석기를 만날 수 있다.

제2부 '흙을 빚어 그릇을 만든다'에서는 일본의 조몬시대와 우리나라의 신석기 시대부터 청동기시대에 해당하는 문화를 선보이고, 제3부 '농경을 하고 영역을 구분한다'에서는 일본의 야요이 시대와 우

리의 마한시대를 비교한다.

또 제4부 '거대한 무덤을 만들고 나라를 표방하다'에서는 한국의 삼국시대와 병행하는 일본의 고훈시대를 함께 다룬다.

시립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에서는 500여점을 전시할 계획이다"며 "국보나 보물급의 전시품은 선보이지 않지만 양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립박물관은 이에 앞서 이달 26일부터 9월 8일까지 국립민속박물관의 지원사업인 'Goodmorning 토우 Hi 하니와, 한일 고대 토기와 토우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고, 이들 체험 작품도 전시할 예정이다. /정음=김대환기자

## 전통문화전당, 안태중 작가 '부채담방' 展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아양 안태중 작가의 '부채담방' 전을 오는 23일까지 한지산업지원센터 2층 기획전시실에서 갖는다.

안 작가의 이번 작품전은 재료 채취와 건조·낙죽 등 여러 과정에서의 시행착오와 고통의 산물로, 무려 5년여 기간의 준비 끝에 만들어진 전시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전시명 '부채담방' 전은 부채를 보고 부치면서 호탕함을 느껴보자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 전시작은 중국 선종의 제3대 조사이신 승한 스님이 선과 중도 사상의 요체를 사언절구의 계승(繼承)으로 지은 시 '심심명(信心銘)'을 60점의 부채 날에 적어 그 풀이와 함께 완성한 작품들로 구성됐다.

작품은 부채마다 날개 형태를 다르게 해 다양한 불거리를 제공한다.

대나무로 만든 부채 자루는 대의 표면을 인두로 지져 무늬를 그리는 '낙죽기법'을 활용, 한 편씩의 시구절을 하나하나 새겨 넣었으며 벽조목·우골·은·황동 등 기타 재료를 혼합 사용해 완성도를 높였다. /정해은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전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문의전화 : 063) 453-0854 / 010-6710-0854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